

- 주요 뉴스: 미국 재무장관, OPEC+ 감산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
 - 러시아, 크림대교 폭발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및 병력 보급에 차질
 - 중국 외교부, 미국의 반도체 금수조치에 따른 첨단산업 피해를 경고
 -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, '24년까지 2% 물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
- 국제금융시장: 美 고용지표 예상치 상회 및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위험선호 강화
주가 상승[+1.5%], 달러화 강세[+0.6%], 금리 상승[+5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견조한 고용지표와 서비스업지수 등으로 상승
 유로 Stoxx600지수도 영국 감세안 일부 철회 및 저가매수 등으로 1.0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의지 등으로 강세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6%, 0.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전망으로 상승
 독일은 유로존 인플레이 사상 첫 두자리 수 기록 등으로 8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7일	9/30일	전주말대비			10/7일	9/30일	전주말대비
주가	미국	3,639.7	3,585.6	1.51%	국채 금리 10y	미국	3.88%	3.83%	5bp
	유럽	391.67	387.85	0.98%		독일	2.19%	2.11%	8bp
	중국	휴장	3,024.4	0.00%		영국	4.24%	4.09%	15bp
	일본	27,116	25,937	4.55%	CDS 5y	한국	58bp	58bp	0bp
	한국	2,232.8	2,155.5	3.59%		중국	104bp	108bp	-4bp
환율	달러지수	112.80	112.12	0.60%	위험 지표	EMBI+	457	467	-10bp
	유로화	0.9744	0.9802	-0.59%		VIX	31.36	31.62	-0.82%
	엔화	145.25	144.74	-0.35%		WTI유	92.64	79.49	16.54%
	위안화	휴장	7.1159	0.00%	원자재	구리	338.7	341.3	-0.76%
	원화	1,412.4	1,430.2	1.26%		금	1694.8	1660.6	2.0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**미국 재무장관, OPEC+ 감산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**
 - 금번 감산이 특히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는 한편,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유가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전망. 한편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자금지원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연
 - 아울러 현재의 달러화 강세 현상은 미국 경제의 성장 및 펀더멘탈 등을 고려시 적절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우려 역시 과도하다고 일축
 - 반면 러시아 정부는 OPEC+의 감산조치를 환영하며 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과 무분별한 증산 요구 등을 통해 원유시장을 왜곡한다고 비난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**러시아, 크림대교 폭발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 물자 및 병력 보급에 차질**
 -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핵심 보급로인 크림대교가 폭발로 인해 일부 운송이 중단. 이를 대체할만한 경로가 없는 가운데 해당 운송로의 완전한 복구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전망
 -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도시에 보복성 공격을 가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.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공급이 재개되었으나 국제원자력기구는 지속적인 포격에 따른 방사선 누출 가능성을 경고
- **중국 외교부, 미국의 반도체 금수조치에 따른 첨단산업 피해를 경고**
 - 해당 조치로 인해 중국 기업의 권익을 해칠 뿐 아니라, 글로벌 공급망에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. 아울러 미국이 첨단산업을 무기화하고 수출금지를 남용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해가 될 뿐이라고 강조
 - 환구시보 역시 미국이 일방적인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으며 금번 조치가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을 촉진시킬 뿐이라고 비판. 아울러 글로벌 반도체 기업매출의 30%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
- **캐나다 중앙은행 총재, '24년까지 2% 물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**
 - 기준금리를 금년 3월 이래 300bp나 인상하였으나 높은 구인율 등을 볼 때

기업들의 고용의지가 여전히 상당하며 긴축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. 향후에도 적절한 속도의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

■ 중국 국무원, 대도시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확대 계획 발표

- 작년 4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 완화 3개년 계획의 일부로 금번 계획에서는 상하이, 충칭 등의 여행, 금융부문 추가 개방을 포함. 향후 단계적 투자허용을 통해 교육, 전자상거래 등 12개 부문에 대한 개방을 이어갈 전망

■ 포르투갈 정부,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재정지원을 결정

- 정부는 고물가 완화를 위해 기업 및 가계에 30억유로 규모의 전기 및 가스 비용 지원을 결정. 이에 따라 내년 가스 가격이 최대 30% 가량 절감되는 등 생산비용 축소 및 물가억제 효과가 예상

■ 아르헨티나 정부,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 강화 계획 발표

- 외환보유액이 6년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달러가 장외시장에서 공시환율대비 90% 가량 높게 거래되는 등 품귀 현상이 심각. 이에 따라 17일부터 수입업자에 대한 은행 계좌 투기 단속 및 단일화 등을 실시할 계획

■ 제이피모건, 글로벌 마이너스 채권 잔액 '20년 말 대비 90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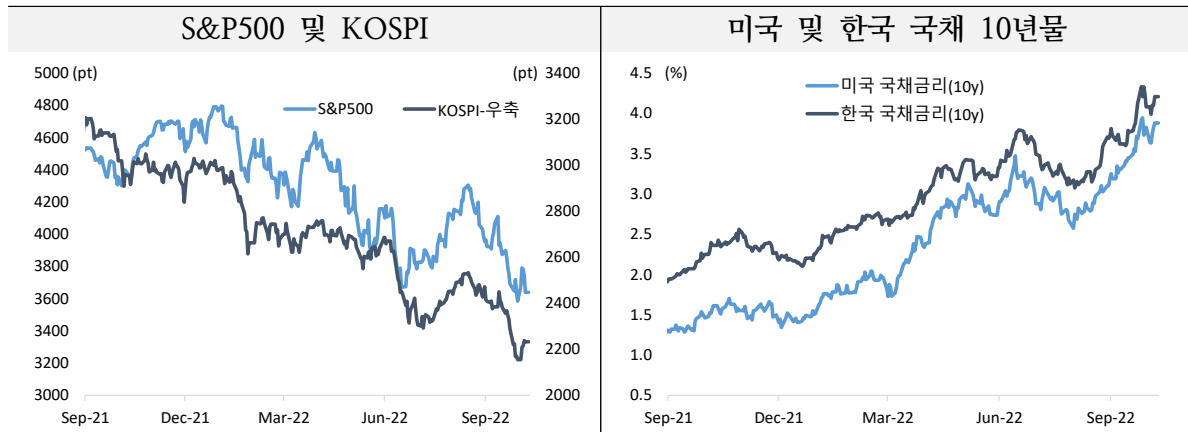
-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해당 채권 잔액은 현재 2조달러에 불과하며 국별로도 일본이 유일. 제이피모건은 일본은행이 '23년 1분기에 수익률 곡선 관리에 변화를 주면서 마이너스 채권 발행액이 점차 소멸될 것으로 전망

주요 경제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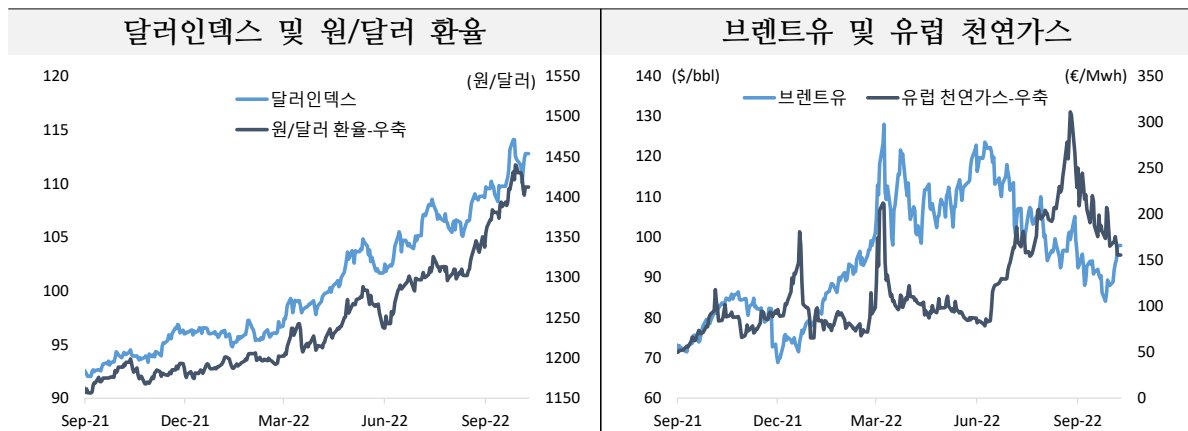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0/7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9월 실업률: 3.5%, 8월(3.7%), 예상치(3.7%)
- 미국 9월 비농업고용자 수(전월대비): 26.3만명, 8월(31.5만명), 예상치(25.5만명)
- 미국 9월 시간당 평균임금 증가율: 5.0%, 8월(5.2%), 예상치(5.0%)
- 독일 8월 소매판매(전년동기대비): -1.7%, 7월(-5.5%), 예상치(-4.1%)
- 중국 9월 외환보유고: 3.03조달러, 8월(3.05조달러), 예상치(3.00조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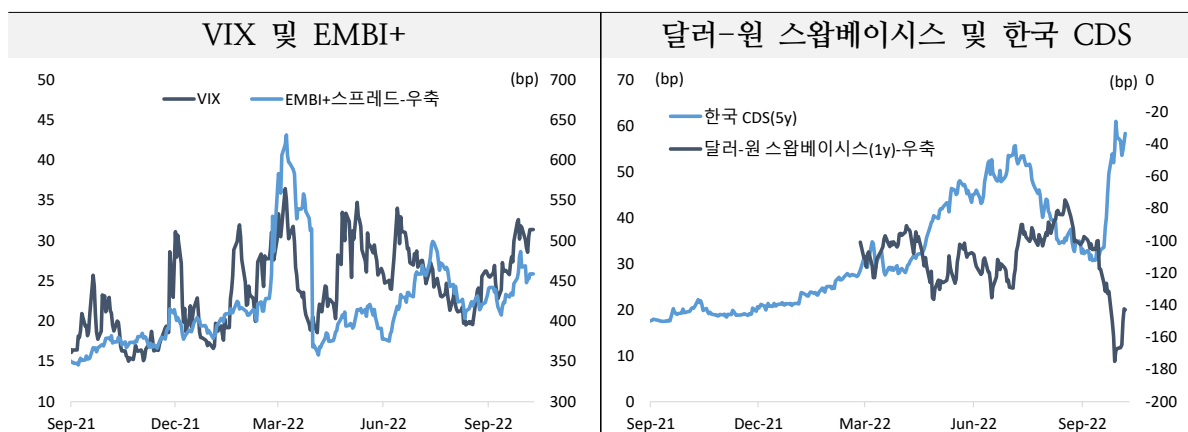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61, E-mail kbkim@kcif.or.kr